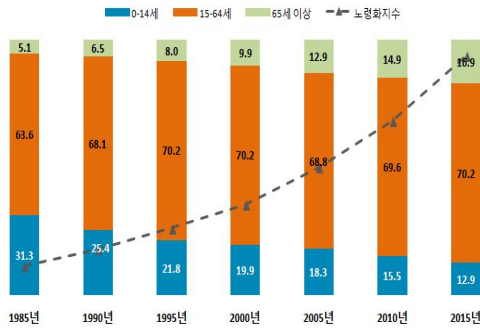


1위 - 영월군청소년참여위원회 '청포도' B팀

2021 강원도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제언하는 내용의 주제	강원도 지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갈등 해소 및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아울러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활동 및 공간 마련
제언이유	<p>#.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A씨가 70대 노인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190cm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A씨에게 무차별적으로 맞은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p> <p>#. 지난 5일 밤 10시경 서울 신림동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C씨가 60대 택시기사 D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C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은 당시 술에 취한 C씨가 택시내에 구토를 하자 이를 D씨가 나무랐다는 이유에서였다. D씨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p> <p>[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한국 사회에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의 노인공경사상이 희미해지고 노인 범죄와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혐오표현을 접하는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한국의 노인 차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국가 중 한국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등에서의 노인 혐오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center;">[1코노미뉴스, 2021.05.14.]</p> <p>위의 사진은 우리나라의 노령화로 인해 '이웃사촌'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마음가짐인 '노인공경사상'이 희미해지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사의 일부이다.</p> <p>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감과 함께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 사회의 구조나 이러한 전통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다.</p> <p>특히 이러한 세대간의 소통 단절로 인한 갈등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p> <p>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르신과 청소년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우리의 옛 전통을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좀 더 화목하고 활발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제언하게 되었다.</p>

[연령 인구구조 및 노령화지수]



[시 군별 고령인구 및 비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최근 강원도는 모든 시.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18개 시.군중 8개 지역(양양, 영월, 횡성, 고성, 평창, 정선, 홍천, 삼척)의 경우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평가 받고 있다.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또한 중위연령은 44.2세로 2005년(37.5세)보다 6.7세, 2010년(40.7세)보다 3.5세 높아져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18개 시, 군 모두가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최악의 취업난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구조 속에 그 골은 더 깊고 넓게 파이는 양상이다. 연금과 일자리, 복지 배분 등 사회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서둘러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암담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세계일보에서 설문조사 전문기업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 30대 청년 500명과 60대 이상 장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7명(65.8%)과 장년 10명 중 6명(56.0%)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국 사회 세대 갈등 수준(단위: %)



자료: 세계일보, 오픈서베이 설문조사

또한, 노인에게 역겨움을 동반한 부정적 감정인 '혐오'를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은 17.6%로 나타났다. 청년 남성(15.6%)보다 청년 여성(19.6%)의 응답률이 더 높았고 청년층 중에서 만 20~24세(30.1%)가 가장 높았다.

자신에게 노인 혐오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 상당수(59.1%)는 노인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혐오를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로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노인혐오 표현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다. SNS나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노인을 비하하는 일명 '할매미(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말하는 노인)', '틀딱충(틀니에서 딱딱나는 소리+벌레)', '꼰대' 등의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노인혐오 표현을 접하는 연령대가 청소년이나 어린이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인권위원회가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표현 경험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68.3%가 혐오표현을 경험했으며** 특히 이들 중 82.9%는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중 **23.9%가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내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가 **어르신의 삶의 지혜와 청년과 청소년의 넘치는 에너지와 잠재력이 서로 상생하여 더욱 활기차고 화목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노인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 공간공유 프로그램 제공

- 캐나다 "The Meadows School Project(MSP)"

<MSP의 세대통합 교육 목적>

-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교류하기
- 프로그램 참여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킴
- 학생들이 노인세대와 협력하는 직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제공
- 학생들이 노인세대의 일상공간에서 활동하며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함
- 노인세대는 그들이 지닌 지식과 경험, 교훈을 학생들에게 공유

제언하는
정책의 내용

"The Meadows School Project(MSP)"는 캐나다 중남부 지역 콜드스트림의 세대 간 공간공유 프로그램으로 노인시설에 학생들을 위한 간이교실을 설치해, 가을학기 5주, 봄학기 3주간 청소년과 50대 이상 노인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교류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MSP는 기존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다르게 '몰입(Immersion)'을 중요개념으로 잡았다. 이는 공간공유로 구체화하며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깊이 참여하도록 하며 활동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3주~5주를 지속해서 교류하는 몰입형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노인과 학생들이 서로 일상을 함께하는 시간과 접촉시간 확대로 이어져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세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강원도 각 지역에 노인세대와 청소년들의 세대 간 공간공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을 제언한다. 구체적인 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강원도 노인세대와 청소년들의 공간공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화전, 자서전 제작, 미술(그림, 조형물), 역사 및 문화 등 다양하게 구성 - 계절별 학기에 따라 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고려 - 지역사회와 연계 가능한 방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일부 강사의 경우 지역사회 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준비 - 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병행(전시회, 봉사활동 등) - 지속 가능하도록 기획 및 운영 : 1회 3주 이상 • 프로그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각 3주차 과정 이상으로 기획) - 1회 2~3시간 이내 • 프로그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특정 이상 연령대 노인세대 지원자 (ex. 60대 이상 어르신) - 지역사회 내 청소년 해당 연령의 지원자 (중·고등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청소년) • 프로그램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장소 및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노인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활용 - 향후 필요에 따라 전용 공간 마련 <p>II. 강원도 노인세대와 청소년들의 공간공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적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복지시설,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등)들이 해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 프로그램 및 활동 장소 등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전문가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 • 해당 정책을 통해 운영되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p>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노인의 공간공유에 대한 청소년의 불편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후 캠페인 활동 시행 (불편을 느끼는 원인 파악 후 해결 가능한 활동 진행) - 프로그램장소를 노인시설과 청소년시설을 번갈아가며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어르신들께 비대면 관련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줌 또는 비대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 진행이 가능한 방법 모색
<p>예산확보 및 예상소요예산</p>	<p>지자체 예산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대관비, 강사비, 운영인력 인건비 등을 산출하여 지자체 예산 확보 - 자세한 예산은 시행 전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
<p>기대효과</p>	<p>[긍정적 변화의 시작, 서로를 이해하다]</p> <p>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면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훨씬 덜 느끼고 정서적</u>

	<p><u>건강을 증진</u>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생 또한 노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고, 노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깰 수 있을 것</u>이라 기대한다. <p>이러한 작은 노력을 시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가 <u>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청년과 청소년의 넘치는 에너지와 잠재력이 서로 상생</u>하여 더욱 활기차고 화목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p>
<p>참고자료 및 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강원)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기획보도(인구부문) ◦ 전문기업 오픈서베이 설문조사 ◦ 인터넷 뉴스 [1코노미뉴스 '백세인생', 2021.05.14.]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정보공유/국외사례, [문화공유]세대 간 차이를 소통과 공감으로 극복하다.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해외사례 - 펜실베이니아 "Penn State Extension" , 캐나다 "The Meadows School Project"